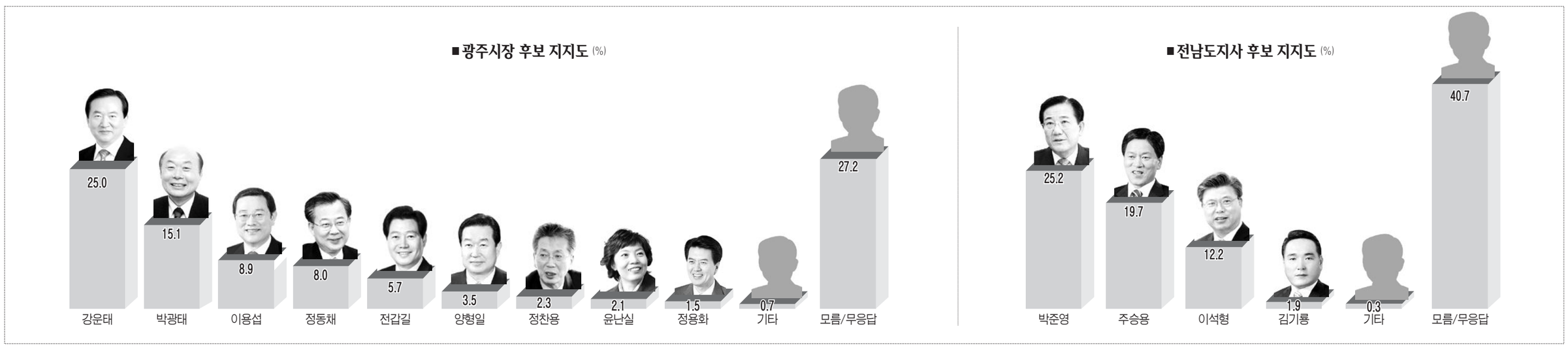
광주시장 이용섭·정동채 약진 전남지사 박준영-주승용 5%P 접전



설문방법 ◇광역단체장·교육감=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와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~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했다.

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(Quota Sampling)을 통해 표본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방식 (CATI 시스템)을 사용했다. 응답률은 광주 23.8%, 전남 35.7%였다.

광주시장, 광주시교육감, 전남도지사, 전남도교육감의 후보 지지도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, 광주·전남 각각 1천500명을 대상으로 분석됐다.

응답자의 특성은 광주지역의 경우 동구 129명(8.6%), 서구 319명(21.3%), 남구(15.6%), 북구 504명(33.6%), 광산구 314명(20.9%)이었고, 성별은 남자 731명(48.7%), 여자 769명(51.3%)이었다. 연령별로는 19~29세 336명(22.4%), 30대 348명(23.2%), 40대 346명(23.1%), 50대 225명(15.0%), 60대 이상 245명(16.3%)이었다.

전남지역은 목포시 181명(12.1%), 여수시 224명(14.9%), 순천시 196명(13.1%), 나주시 77명(5.1%), 광양시 102명(6.8%), 담양군 40명(2.7%) 등이었고, 연령별로는 19~29세 256명(17.1%), 30대 259명(17.3%), 40대 305명(20.3%), 50대 241명(16.1%), 60대 이상 439명(29.3%)이었다.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(각각 1천500 샘플 가중치)은 각각 95% 신뢰수준에 ±2.53%포인트다.

◇기초단체장=광주 각 5개 차기 구청장 후보와 전남도 각 22개 시·군별 차기 시장·군수 후보에 대한 조사는 지지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문항에 대해 광주·전남 인구 비례보다 많은 각 자치구별 300명으로 확대, 각 지역별로 성·연령·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랜덤표본을 추출해 총 8천100명(각 지역 300명)을 대상으로 분석했다.

광주 5개 구(300 샘플 가중치)와 전남 22개 시·군별(300 샘플 가중치)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5.66%포인트다.

※ 설문내용·상세조사방법 인터넷 광주일보에

광주시장 지지도

박시장 서구·북구, 강운태 남구서 상대적 강세

응답자 27% 유보…민주 경선과정 단일화 땐 재편

지난 1월 광주일보와 리서치 앤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 후보들의 지지도가 소폭 증가했다.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공식출마 선언과 함께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.

지난 신년 조사에서 나타난 강운태 의원-박광태 시장의 양강구도는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장관의 '약진'으로 2강 2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.

이번 조사결과 강운태 의원은 지지율을 1%포인트 가량 끌어올려 1위를 고수했으며, 박광태 시장은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그 뒤를 이었다. 아직 응답자의 27.2%가 '잘 모름·무응답'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,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등이 추진될 수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긴 이른 상황이나 견고한 '2강 체제'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.

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(8.9%)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(8.0%)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, 전갑길 광산구청장(5.7%)도 그 뒤를 바짝 쫓으며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.

특히 지난 신년 조사에서 정동채 전 장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이용섭 의원이 1개월여 만에 지지율을 2.1%포인트 끌어올리며 정 전 장관과 순위바꿈을 해 주목된다.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'세 몰이'를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.

이어 양형일 전 국회의원(3.5%),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(2.3%), 윤난실 진보 신당 광주시당 위원장(2.1%),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(1.5%) 순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 지지도에서는 강 의원이 남구(43.2%)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, 광산구(13.6%)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대부분 20%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박 시장은 북구(18.2%)와 서구(17.0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나머지 구에서도 10%대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.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구청장은 지역구인 광산구에서 각각 12.8%, 15.6%로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높았다. 정동채 전 장관은 서구(11.5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연령별로는 강 의원은 50대(41.1%)에서, 박 시장은 19~29세(28.4%), 이용섭 의원은 30대(12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직업별 지지도에서는 강 의원이 농·임·어업(46.1%)에서, 박 시장은 학생(34.7%)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전남지사 지지도

주승용·이석형 지지율 한달새 7.8%·5.8%P↑

박지사 주춤 …부동층 40% 향배 선거 변수로

'현직 프리미엄'을 안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25.2%의 지지율로 경쟁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,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(19.7%)이 박 지사를 바짝 뒤쫓고 있다. 이석형 전 함평군수(12.2%)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. 김기룡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(1.9%)도 민심을 다지고 있다. '1강 2중 1약' 판세로 압축된다.

하지만, 응답자의 40.7%가 '잘 모름·무응답'으로 답변을 유보해 10명 중 4명이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판세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.

이번 조사에서 박 지사는 지난 신년 조사보다 지지율이 5.0%포인트 감소했다. 반면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각각 7.8%, 5.8%포인트 상승하며 박 지사와의 차이를 점차 좁혀가고 있는 양상이다.

주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자격으로 22개 시·군 지역위원회 간담회를 하는 등 보폭을 넓힌 데 이어 지난달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, 도당 위원장 사퇴 등이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. 군수 조기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 전 군수의 경우 전남지사 출마 예정자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전에 뛰어든 것도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하지만, 박 지사도 이달 말께나 3월 초 공식 출마의 뜻을 밝힐 예정이어서 향후 지지율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, 부동층이 40%나 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박 지사는 목포시(38.8%), 나주시(31.8%), 영암군(40.1%), 강진군(43.2%), 완도군(39.2%), 신안군(34.2%) 등 전남 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반면, 주 의원은 여수시(50.5%), 순천시(30.9%), 광양시(25.5%) 등 전남 동부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, 나머지 시·군에서는 한자릿수 또는 10%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다.

이 전 군수는 '3선'을 했던 함평군(56.4%)과 영광군(26.9%), 무안군(20.7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, 나머지 19개 시·군에서는 10%대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.

박 지사는 모든 연령·성별·직업별에서 20~30%대의 고른 지지를 얻었지만, 주 의원은 30·40·50대에서 20% 초반대의 지지율을, 직업군에서는 자영업과 화이트칼라, 학생층에서 박 지사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. 이 전 군수는 상대적으로 19~29세와 60대에서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, 직업군에서는 가정주부와 학생, 무직·기타에서 낮은 지지를 나타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